조선
주체113
(2024)
10
(821)

주체45(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특별소식

특 집

소 식

오늘의 조선

력 사

표　지: 조선로동당상징탑
뒤표지: 묘향산의 썀골폭포　사진 공유일
편　집: 변일진, 김규성, 조철주, 승 룡

22

28

44

50

62

특별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을 만나 축하하시고 국가사업방향에 관한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에 즈음하여 강령적인 연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륭성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위대한 인민이 부여한 중책에 항시 헌신으로 보답하고저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이고있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번영에로의 줄기찬 창조투쟁에 순결무구하고 진함없는 애국충심과 견인불발의 노력을 바쳐가는 소중한 자부심을 안고 국경절을 긍지높이, 떳떳하게 경축하고있는 전체 인민들과 군장병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아울러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간직하고 애국의 한길에서 변함을 모르는 총련의 애국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으며 공화국의 자주권과 정의의 위업을 인정하고 지지해주고있는 친선적인 모든 나라 인민들과 벗들에게 사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또한 우리 국가의 창건과 강화발전,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고귀한 생애와 위훈을 바치고 후세토록 본받을 훌륭한 전통과 모범을 창조한 전세대의 혁명선렬들과 애국렬사들, 공로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 땅 어디서나 변함없이, 더욱 찬연하게 나붓기는 우리의 국기를 긍지높이 바라볼 때에도 그렇고 해마다 국경절을 맞이할 때에도 자연히 절감하군 하는것이지만 세상에 우리 공화국처럼 위대하고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는 없습니다.

악독한 식민지통치기반에서 벗어나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 때에는 물론이고 력량상 비할바없이 우세한 제국주의련합무력의 침략을 물리칠 때에도 조선에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적들이 창조되였으며 페허우에서 사회주의국가에로 비약하던 천리마조선, 주체조선의 력사적행로에도 언제나 기적이 충만되여있었습니다.

더욱 자부하게 되는것은 우리 국가의 이같은 영예로운 행적이 비단 전세대가 걸어온 과거의 력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것입니다.

오늘의 현실도 그 기적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분명코 계속 전진하고있습니다.

옹근 한세대가 바뀐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준엄한 도전과 시련을 무수히 겪으면서도 추호의 동요나 탈선도 없이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발전시킨것은 **김일성**주의위업에 대한 가장 충직하고 완벽한 계승이며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실체인 우리식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생명력, 생활력의 영원불멸성을 실천으로 립증한 거대한 정치적승리로, 력사적기적으로 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하고 혁명대오내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도 인민들자신이 주인이 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한 사회주의는 절대로 좌절되지도, 흔들리지도 않으며 영원히 승승발전한다는 주체의 진리, 백승의 철리를 온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당과 정부는 사회주의위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진도상에서 분수령으로 되는 거창하고도 거폭적인 대업을 조직전개하였습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당 제8차대회가 결정하고 포치한 5개년계획의 네번째 해의 투쟁과업을 실천하고있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투쟁령역에 지방진흥의 중장기적인 과제를 더 부가해 떠멘것은 우리 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자신심의 표현이며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가려는 우리 당중앙의 혁명적관점과 자세인 동시에 인민에 대한 철저한 복무정신의 발현입니다.

우리는 혁명위업의 전진도상에서 이러한 도전적인 고비, 력사적단계를 승산있게 과감히 딛고 넘을 확고한 자신심에 넘쳐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내린 이같은 혁명적결정은 전국인민들의 복리증진으로 사회주의우월성을 실제적으로 발양시켜 우리 제도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전면적국가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결단으로 됩니다.

아직은 나라의 경제형편이 순탄하지 못하고 여력을 내기도 힘든 조건에서 앞으로 10년안에 전국의 시, 군들에 다각적으로, 자립적으로 발전해나갈수 있는 기본적인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어준다는것은 이전시기같으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였을것입니다.

하지만 당과 정부는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신임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 군대의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충실성과 강한 전투력을 믿고 과학적인 전략과 현실적인 실천계획을 세웠으며 20개 시, 군들에서는 주요지방공업공장들의 실체가 예상했던 그대로 뚜렷해지고있습니다.

이에 만족함이 없이 당과 정부는 지방의 락후성을 최대한 더 빨리 털어버리기 위해 추가적인 구상을 발기하고 철저한 실천에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나는 이미 지방발전정책을 중대한 정치적문제로 보고 당과 정부의 최우선적인 혁명과업으로 간주할데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70여년, 근 80년에 달하는 기간 해내지 못했던 사업이라 아직까지는 지방발전구상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와 립장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확언합니다.

우리의 지방발전정책이 그 집행에서 담보가 있는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멀지 않아 10년후에 우리는 오늘의 이 물음에 현실적 변혁으로써 대답할것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의연히 난관과 애로가 겹치는 속에서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장성추이를 견지하고 기간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이 월별, 분기별 생산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하면서 올해에 달성해야 할 정비보강목표들을 착실히 추진하고있는것도 우리가 쟁취하고있는 성과라고 말씀하시였다.

올해 우리는 경공업과 도시경영을 비롯하여 인민생활안정과 직결된 부문들에서 보다 개선되고 변화된 결과들을 얻어낼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고있으며 농사작황도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괜찮으며 그만하면 좋은 결실을 내다볼수 있게 되였습니다.

자연재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기능과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일련의 전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록 지난 7월말에 압록강하류의 평북도지역과 자강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혹심한 큰물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적인 사업에 지장도 받고 방대한 력량이 투하되지 않으면 안되였지만 이 과정에 당과 정부가 자연재해대응에서의 허점과 공간을 새롭게 세밀히 투시하고 앞으로의 전망적이고 불가역적인 방지대책을 강구하게 된것은 중요한 진일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나라의 믿음직한 안전환경을 확보하고 사회주의건설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국방력의 급진적인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여 커다란 획기적결과들을 쟁취하였습니다.

올해에 들어와 특히 불과 몇달어간에 우리는 국방연구와 생산에서 중요성과들을 획득함으로써 경이적인 군사력을 확충하였습니다.

이 모든 국가사업의 현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는 당중앙위원회가 올해 사업을 계획하고 작전하며 추가로 제시한 중요정책적과업들이 기본적으로 승세를 타고 옳게, 만족스럽게 진척되고있다고 분석할수 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제 남은 몇달어간에 시간을 최대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올해의 투쟁성과를 더욱 풍부히 하고 증폭시키기 위한 긴장한 사업들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전체 당원들과 온 나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의 무한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더욱 승화시키고 확대시켜 성공적인 결실에로 이끌어가는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앞에 나서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혁명임무입니다.

전면적국가부흥의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올해 경제사업 결속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12개 중요고지를 담당한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들에서 부과된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는데 현재의 투쟁분위기와 기세가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추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와 창발성을 최대한 높이고 기술기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능숙한 작전과 혁신적인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산부문전반에서 현존설비들에 대한 정상적인 정비보수로써 설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며 생산공정들과 설비들의 부단한 갱신이 생산물의 량적, 질적수준을 담보하게 하여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경제 주요부문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기간공업부문에서 올해까지 완결하게 되여있는 정비보강계획들을 제기일에 무조건 끝내여 국가적인 생산력을 한층 강화하도록 이미 세운 국가적인 조치들의 실행여부를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부족한 문제들과 요소들을 더 찾아 결정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제는 물론 국가와 사회생활의 발전이 중요하게 건설물의 실체로 표현되는것만큼 건설부문에서는 질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올해 계획을 드팀없이 완결하여야 합니다.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과 농촌살림집들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여있는 건설물들의 질을 철저히 담보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건축설계수준을 세계적인 높이에로 끌어올리고 건설장비와 기공구

들을 표준화, 현대화하는 사업에서도 두드러진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삼지연시에 새로 건설한 려관들을 호텔로 전환하고 관광대상들을 더 개발하여 삼지연시를 세계적인 산악관광지로 전변시키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다음해부터 운영할수 있도록 완벽하게 꾸리기 위한 대상건설들도 착실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시대발전과 현실적요구에 따라세우기 위한 경제적수단과 방법들을 결정적으로 갱신하여 경제전반에 대한 장악력, 지휘력을 적극적으로 높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적으로 생산물의 원활하고 편안한 류통을 중요시하고 기업체들의 상대적독자성에 기초한 생산경영활동의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지어주는데 선차성을 부여하며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지속적으로 높여주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는것은 단지 농업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기 위한 정치적사업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올해 농사결속과 다음해 농사차비를 잘하기 위한 명확한 실천방도들을 명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재까지의 큰물피해복구사업정형을 분석평가하시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였다.

기일이 촉박하고 복구대상과 공사량이 방대하다고 하여 건설물의 질을 떨구면 절대로 안됩니다.

복구력량이 충분히 투입되고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열의도 비등되여있는것만큼 공사를 제기일에 끝내는가 끝내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건설자재와 설비, 륜전기재들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철도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강재와 세멘트, 연유, 통나무, 유리를 비롯하여 건설자재, 설비들을 계획대로 제 날자에 어김없이 보장하며 긴장한 수송문제를 풀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공사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피해복구사업을 제기일에 질적으로 끝내여 수해지역 인민들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피해를 입은 인민경제부문들도 자기 궤도에 올려세워 자연과의 투쟁도 승리적으로 종결하여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당과 정부가 특별히 중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선결과업은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의 무조건적이고도 완벽한 실행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혁명과 건설의 천사만사를 인민의 권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하는데로 지향시키고 조건과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인민의 복리를 위한 정책을 부단히 확대해나가는 우리 당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에 있어서나, 지방의 세기적인 변혁이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위하여 제일 중대한 과제로, 필수불가결한 요구로 급부상한 현시점에 있어서 이보다 더 절실하게 나서는 혁명임무는 없습니다.

수도에 새로 일떠선 몇개 거리를 놓고, 또 수도시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놓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제도적특성과 우월성에 대해 평가하려고 하여서는 안되며 류례없이 엄혹한 난국이 겹쌓인 속에서 이만큼 한것도 큰 성과라고 자부하여서는 더욱 안됩니다.

이러한 견해와 관점은 혁명발전에 해롭습니다.

고층, 초고층건물들을 지으려면 그만큼 기초가 든든해야 하는 건축공학적, 구조력학적원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제도가 굳건하자면 그 우월성을 확신하는 민심적인 기초가 든든하고 전체 인민이 실생활을 통하여 여기에 적극 공감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고 대를 이어 지켜가려는 전인민적인 일념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것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전 령토를 이루고있으며 우리 국가제도를 떠받드는 지역적거점, 말단단위인 시, 군, 농촌들을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지방발전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이처럼 지방발전이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문제로, 우리 혁명의 전도와 직결된 매우 중차대하고 시급한 문제로 부상되기때문에 나는 올해초에 전원회의사업토의가 끝나자마자 다시 정치국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그 강력한 실행에 더없이 중대한 정치적의의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지방공업공장건설과 함께 매 시, 군들에 보건시설과 과학기술보급기지, 량곡관리시설

건설을 병행시켜 지방중흥의 력사적위업을 가속화해나갈데 대한 새로운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올해는 새시대 지방발전정책관철의 장엄한 포성을 울린 해인것만큼 지금까지의 성과를 계속 확대하면서 계획한 대상과제들을 반드시 수행하여 우리 당의 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10년혁명의 본격적인 시행단계를 확신성있게 열어놓아야 합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실현에서 선차적인 과업으로 나서는 지방공업공장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년말에는 반드시 20개 시, 군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완공의 실체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방건설에 동원된 각급 군부대 관병들은 당의 존엄, 인민군대의 명예를 걸고 지방공업공장들의 건축공사를 자그마한 손색도 없이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완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20개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의 건축공사가 90%계선에 들어섰는데 설비제작과 수입을 맡고있는 단위들에서도 분담된 과제들을 원만히 수행하고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중앙의 경공업공장들과 해당 대학들, 도, 시, 군들에서는 현대적으로 일떠서는 지방공업공장들을 관리운영할수 있는 기술자, 기능공양성계획을 제정된 기일안에 철저히 집행하여 우리당 지방발전정책관철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성, 중앙기관들과 해당 도, 시, 군들에서는 지방공업공장들이 완공되는 차제로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들을 준비하고 보장하여야 합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이 현실로 전환되고 지방인민들의 생활개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되도록 하는데서 매개 시, 군들이 자체의 예비를 조성하는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를 바다가양식업의 표본기지로 건설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여 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열도록 새로운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새롭게 추가된 3개 대상건설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이미 추가대상으로 예견하였던 과학기술보급중심은 종합적인 문화생활거점으로 확장하여 건설하자고 한다고 하시면서 시, 군들에 현대적인 정보기술수단들을 갖춘 과학기술보급거점만이 아닌 주민들이 영화도 관람하고 체육문화생활도 하며 위생환경조건이 보장된 상업망들과 기타 각종 편의시설들까지 포함된 다기능화된 복합형문화중심을 리용할수 있게 건설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종합적인 문화생활중심은 지방건설력사에서 개념조차 없던 새로운 대상인것만큼 나는 지대적조건과 인구수에 따라 그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형성안을 비롯한 건축설계를 잘하고 그에 맞게 건설예산안을 명확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20개 시, 군들을 훌륭히 일신시켜나가면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도농격차가 현저히 줄어들고 지방인민들의 생활이 도시사람들 못지 않게 유족하고 문명해질수 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국가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을 계속 강하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변군사적안전환경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쁠럭체계의 무분별한 확장책동과 그것이 핵에 기반한 군사쁠럭이라는 성격으로 진화됨에 따라 중대한 위협으로 우리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위협들은 전망적으로 기필코 더 다양한 위협들을 불러올것이며 따라서 이런 형세발전은 우리로 하여금 군사적강세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데 보다 중대한 조치들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것을 요구합니다.

명백한 결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력량과 그를 국가의 안전권을 보장하는데 임의의 시각에 옳게 사용할수 있는 태세가 더 철저하게 완비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핵무기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일데 대한 핵무력건설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해나가고있으며 공화국의 핵전투무력은 철통같은 지휘통제체계안에서 운용되고있습니다.

우리 국가는 책임적인 핵보유국입니다.

항시 엄중한 핵위협을 받고있는 우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가진 핵무기는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을 위협적이라고 떠드는 그런 세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핵으로 공격하려는 적의를 품고있다는것을 자인하는것으로 될것입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으로부터 가해지는 각이한 위협들, 우리가 직면하고있는 안전환경하에서 강력한 군사력 보유는 우리 당과 정부가 한시도 놓치지 말고 또 단 한걸음도 양보하지 말아야 할 의무이며 생존권리입니다.

강력한 힘,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우리 국가발전의 절대적인 담보입니다.

우리 군대의 전쟁수행능력을 부단히 강화발전시켜 지역안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력한 힘으로 국가주권과 안전리익을 수호하는것은 당과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중차대한 국사이고 혁명의 제1대과업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을 보유한 적수국가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위협적행동에도 철저히 대응할수 있는 핵력량을 부단히 강화해나갈것이며 핵무력을 포함한 국가의 전체 무장력이 완전한 전투준비태세에 있게 하기 위한 대책과 노력을 배가해나갈것입니다.

다시금 확언하건대 우리의 지향과 끊임없는 노력에 의하여 공화국의 군사력은 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할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도달할 한계점을 찍어놓지 않을것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대회결정관철의 확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올해 투쟁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해당단위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오늘 우리 혁명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헌신적으로 분투하고 적극적으로 활약할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전당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혁명의 요구와 맡고있는 책무를 똑바로 자각하고 자기 사명을 깊이 명심하여 올해 투쟁과업들을 무조건,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부문, 단위앞에 시달된 정책적과업들과 그 실행을 위해 채택한 당결정집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정확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적실한 대책들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행을 위한 장악지도사업과 재포치사업을 심화시키면서 립체전, 전격전을 완강하게 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조직력과 지도력, 실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올해 투쟁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격적으로, 박력있게 전개해나간다면 얼마든지 년말까지 실속있는 결과물들을 내놓을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계획목표점령을 위한 사업을 행정일군들에게 밀어맡기는 그릇된 관점과 태도를 극복하고 당위원회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조직사업과

장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활동성은 대중의 정신력과 지혜를 얼마나 높이 발동시키는가 하는데 따라 평가됩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높은 책임성과 분발력을 발휘하여 생산자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맹렬하게 전개함으로써 전국이 들끓고 그 어느 단위에서나 집단적혁신운동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제시된 정책적과업들이 모든 조건과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타산하고 세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투쟁목표이며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집행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수행할수 있다는 관점을 심어주어 그들이 자신심과 배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전선동수단과 력량을 들끓는 투쟁현장들에 투입하여 강력한 사상공세를 잠시도 중단없이 줄기차게 들이댐으로써 대중의 뜻과 마음이 올해 계획목표점령에로 총지향되고 일터마다에서 앙양된 혁명열, 투쟁열이 식지 않고 계속 고조되게 하여야 합니다.

올해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는데서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의 조직자, 집행자인 일군들과 당원들이 주도성, 창발성, 활동성을 더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이 당의 신임에 높은 사업실적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투쟁목표들을 실속있게, 완벽하게 집행해나가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 분투하도록 당생활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과 정부내 각급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 지도간부들이 맡은 책무를 무겁게 자각하고 항상 긴장한 책임의식속에서 어떻게 하면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직책상임무를 똑바로 수행하겠는가를 모색하고 치밀하게 작전하며 사업을 완강하게 전개해나가도록 장악통제하면서 적극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이 당결정관철로 들끓는 투쟁의 전구마다에서 가장 힘든 모퉁이, 누구나 선뜻 나서기 주저하는 곳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대중을 혁명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가며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온갖 장애물을 단호히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앞장서도록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각급 정권기관 일군들, 특히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보다 높여야 하겠습니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올해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의 사활이 결정될수 있다고도 할수 있는 이 기간에 보다 책임적으로 사업해야 할 일군들이 바로 경제지도일군들입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관철할것을 맹약한 시효기간이 이제 110여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자각하고 하루한시도 허술히 보내지 말고 맡은 임무수행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일군들이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복무정신과 혁명적락관을 가지고 사업을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의 전반사업이 당과 혁명, 인민의 요구, 격변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원활하게 진행되여나가도록 하는데서 법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일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올해 우리 당과 정부는 국가의 전면적부흥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거창하면서도 보람찬 사업들을 설계하고 강력히 추진시키고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다 수월치 않고 난관도 적지 않지만 우리는 확고한 자신심과 완강한 의지로 괄목할만한 실적들을 반드시 이루어냄으로써 올해를 국가발전사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모두다 우리의 어머니조국의 평안과 륭성, 거창한 번영을 위해 그리고 전국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실현해나간다는 긍지와 자신심을 백배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아갑시다.

이 나라의 모두에게 다시한번 따뜻한 축원을 드리며 위대한 어머니조국의 국경절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특별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오진우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6일 우리나라 포병무력핵심골간육성의 원종장인 오진우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를 시찰하시였다.

백전백승 무적강군의 위력과 용맹을 떨치며 조국과 인민, 정의와 평화를 억척으로 사수해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제1병종지휘관들을 키워내는 명성높은 군사학원 교정은 **김정은**동지를 모시는 무상의 영광과 특전을 받아안게 된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끝없이 설레이였다.

김정은동지께서 학교에 도착하시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절대적힘의 상징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강철의 령장께 드리는 포병들의 최대의 경의가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으로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교장 륙군대좌 유창선동지와 정치부장 륙군대좌 최훈동지가 영접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군기에 경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 학교의 교육일군과 학생이 전체 포병장병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우리 혁명무력의 줄기찬 승전사와 최강의 군사기술적강세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포병무력강화의 근본초석, 원동력으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온 권위있는 군사학원의 전체 교직원들과 핵심병종의 지휘관들로 성장해가는 학생들에게 전투적격려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손길아래 인민군대 포병지휘관양성의 기본거점으로 장성발전하며 자기의 연혁사에 불멸의 무훈을 새겨온 학교는 앞으로도 당의 포병중시사상과 군사교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과 혁명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결사의 복무정신을 지닌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높은 군사적자질을 갖춘 유능한 군사인재들을 육성해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강순남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정경택동지, 해군사령관 김명식동지, 정찰총국장 리창호동지와 공화국 국방성 군사교육부문 지도간부들이 동행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조용원동지, 리일환동지, 김재룡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관학교 학생들의 분렬행진을 사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손길아래 인민군대 포병지휘관양성의 기본거점으로 장성발전하며 자기의 연혁사에 불멸의 무훈을 새겨온 학교는 앞으로도 당의 포병중시사상과 군사교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과 혁명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결사의 복무정신을 지닌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높은 군사적자질을 갖춘 유능한 군사인재들을 육성해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책임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병기연구실을 돌아보시고 지상포사격연구실과 포병전술연구실에서 진행하는 련습상학을 참관하신데 이어 교육정보종합조종실에서 교육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포병으로 진격로를 열고 포병으로 적을 압승하며 전승의 축포도 쏘자는것이 우리 당의 포병철학이며 포병중시사상의 핵이라고 하시면서 이로부터 우리당 강군건설로선관철의 보루이고 전초선인 군사교육전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방면은 포병전문교육부문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주객관적형세가 아무리 어려워도 전군의 철저한 림전태세를 갖추기 위한 훈련혁명과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위한 군사교육혁명은 그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동시에 강력히 밀고나가야 할 강군건설의 2대전선이라고 하시면서 공화국무력의 백년지계를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교육혁명의 전초에 마땅히 포병종합군관학교가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군사력발전추이를 통찰하고 우리 당이 군대내 모든 병종들중에서도 특별히 전략전술적의의가 큰 포무력강화에 주력하여 최강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다져온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바로 그 막강한 첨단무장장비들이 자기의 실전성능을 최대한 발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포병지휘관들의 수준과 역할에 기인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실전을 모의하여 지휘관의 전투정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책임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병기연구실을 돌아보시고 지상포사격연구실과 포병전술연구실에서 진행하는 련습상학을 참관하신데 이어 교육정보종합조종실에서 교육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판단과 지휘능력을 판정하는 강의들을 학습조별론쟁의 방법으로 심화시키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교육수단의 현대화, 교육의 정보화, 과학화를 부단히 다그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학교의 모든 교원, 연구사들이 주체적포병무력의 장래를 책임졌다는 신성한 사명감을 안고 일심분투로 포병전법혁명, 포병군사리론혁명을 일으켜 교육의 질적수준을 제고하며 교내에 혁명적인 학풍과 군기를 철저히 확립하여 학생들이 재학기간 더욱 깊고 풍부한 군사지식들을 습득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학교의 학술체계와 학제를 현대군사교육의 발전방향에 맞게 실리적으로, 효률적으로 갱신, 조률하여 학생들이 실전에서 반드시 활용할수 있는 산전법을 터득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교정의 교문을 나선 모든 포병지휘관들은 주체의 포병전법과 각이한 타격능력의 첨단무장장비들에 완전히 정통하고 현대전의 임의의 정황에도 신속히, 원만히 대응하여 적을 압도적으로 제압소멸할수 있는 만반의 전투지휘능력을 갖춘 명실공히 일당백의 만능포병, 포병인재들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무력강화에서 포병종합군관학교가 차지하는 중요한 임무와 지위에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것은 군사교육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키는데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학교를 전군의 군사교육기관들의 본보기, 세계일류급의 군사학원으로 훌륭히 전변시키실 의지를 표명하시고 이를 위한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 군사교육부문의 각급을 발전하는 현대교육추세에 맞게 더욱더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개변시키는데서 나서는 방도적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학교의 교직원, 학생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탁월한 혁명무력건설사상과 천리혜안의 예지로 포병무력강화를 위해 학교가 나아갈 휘황한 진로를 명시해주시고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는 강철의 령장을 우러러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관록있는 포병종합군관학교가 앞으로도 우리 혁명무력의 핵심골간들을 가장 훌륭히 완벽하게 육성해내는 자랑찬 군사교육성과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크나큰 기대에 보답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환송해드리는 교정에서 터쳐올리는 《**김정은**》, 《결사옹위》의 우렁찬 합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무진막강한 군력을 억척으로 다져 자주강국의 국권과 국익, 우리 인민의 안녕과 복리를 천추만대로 굳건히 수호해나갈 견결한 강군건설의지가 어린 **김정은**동지의 포병종합군관학교에 대한 현지시찰은 주체적포병무력강화와 군사교육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는 특출한 계기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현지료해를 진행하시였다

나라의 방위력건설과 군건설의 력사적전환기의 요구에 따라 주체적해군무력강화를 급선무적인 과제로 제기하고있는 우리 당의 강군건설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적인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현지료해를 진행하시고 그 실현방향과 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원수 박정천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강순남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 리창호동지,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 김명식동지, 해군 동, 서해함대사령관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안연선을 따라 항만시설건설예정지구를 돌아보시면서 지도간부들과 함께 건설방향과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을 협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령토 동, 서에 바다를 끼고있는 해양국인 우리 국가는 국가건설에서나 국가방위력건설에서 조선업과 해군무력발전을 언제나 중시하여왔다고,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새시대 강군건설목표에 따라 해군무력을 빠른 기간에 지역안보환경에 부응한 강력한 군종집단으로 진화시킴에 있어서 현대화, 다기능화된 해군기지창설은 매우 관건적인 공정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전략적요충지로서의 해군기지건설예정지의 지정학적유리성에 대하여 개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가까운 기간내에 현존함선계류시설능력으로는 수용할수 없는 대형수상 및 수중함선들을 보유하게 되는데 맞게 최신형대형함선들을 운용할 해군기지건설은 초미의 과제로 나서게 되였다고 강조하시고 함선계류와 탑재무기체계들의 운용취급, 해병들의 문명한 기지생활문화를 확립할수 있는 군항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우리 나라 해군력의 상징, 해군의 작전지휘와 해군문화의 중심지로서의 현대화된 항구도시를 일떠세우는것은 절박한 시대적과업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항방어를 위한 반항공 및 해안방어무기체계들을 배비하는데서 나서는 군사적대책들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상과 같은 당면조치들을 강력히 실행하여 우리당 해군전력강화로선관철에서 획기적인 진일보를 내짚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위력한 전위대이며 주력인 혁명군대를 부단히 강화발전시켜 조국과 인민의 번영과 안녕, 후손만대의 행복을 억척으로 수호하는것은 우리 당이 내세우는 가장 중차대한 국사이고 혁명의 제1대과업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공업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2경제위원회산하 국방공업기업소를 방문하시고 무장장비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인 조용원동지, 박정천동지, 리일환동지, 김재룡동지, 조춘룡동지, 김정식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생산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반년도 무장장비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군수공업정책을 충성으로 받들고 방대한 군수생산과제들을 책임적으로 정확히 집행해나가며 우리 무력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있는 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본때와 비상한 사상정신세계를 높이 평가하시며 감사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개발생산하고있는 무장장비들의 구조적특성과 성능, 전술기술적제원을 료해하시면서 군수생산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제고하고 무장장비들의 전투적성능을 철저히 담보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수로동계급의 진함없는 투쟁에 의하여 당 제8차대회가 결정포치한 5개년기간내의 무장장비생산목표를 확신성있게 점령할수 있는 전망성이 담보되고있는데 대하여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국방공업기업소가 군수생산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갈 원칙과 방도들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박건조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박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인 조용원동지, 박정천동지, 리일환동지, 김재룡동지, 조춘룡동지와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 해군대장 김명식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 생산공정들과 배무이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최근에 진행한 선박건조공정의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군수공업정책과 선박공업정책을 정확히 관철해나가기 위해서는 선박공업전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현대화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사업이 최우선시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적인 추가조치들을 강력히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박공업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갈 혁명적투쟁방향을 재삼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날 나라의 해상주권을 굳건히 보위하고 전쟁준비를 다그치는데서 해군무력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고 거듭 이르시면서 선박공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국방경제건설로선관철의 중요한 담보로, 전제조건으로 된다고 또다시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가 결정포치한 선박공업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당면과업들과 전망계획사업들이 과학적인 타산밑에 자기 시간표대로 진척되도록 이 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정책적 및 기술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무력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대에 오르시여 훈련강령에 따라 전투원들이 진행하고있는 대상물정찰 및 습격전투훈련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11일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무력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하시고 전투원들의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훈련기지의 여러 시설들을 돌아보시며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지의 모든 시설들과 훈련장들을 실전가상훈련을 실용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효과적으로 설비해놓고 전투원들을 만능전투원들로 엄격히 육성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앞으로 훈련시설들을 보다 갱신하고 운영을 과학화하기 위한 조건보장사업에 국방성과 총참모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대에 오르시여 훈련강령에 따라 전투원들이 진행하고있는 대상물정찰 및 습격전투훈련을 보시였다.

준엄한 결전의 시각이 온다면 적들의 심장부를 급습하고 공격하는 부대들의 진격로를 단숨에 열어제낄 백배의 각오로 가슴끓이며 훈련장마다에 충성과 위훈의 구슬땀을 뿌려온 전체 전투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하는 훈련에서도 진짜 싸울줄 알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백전백승 혁명무력의 싸움본때, 싸움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적이며 현대적인 전투조법에 완전히 정통하고 비호같이 훈련장을 주름잡는 군인들을 대견하고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모든 전투원들이 혁명적이며 강도높은 훈련열풍속에 하나같이 끌끌하고 용감무쌍한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자라나 확실한 림전태세를 철저하게 견지해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적이며 현대적인 전투조법에 완전히 정통하고 비호같이 훈련장을 주름잡는 군인들을 대견하고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모든 전투원들이 혁명적이며 강도높은 훈련열풍속에 하나같이 끌끌하고 용감무쌍한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자라나 확실한 림전태세를 철저하게 견지해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총알처럼 땅땅 여문 용맹한 싸움군들로 준비된 우리 군인들의 기백넘친 모습을 보게 되니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대단히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 필승만을 떨쳐가는 우리 군대의 믿음직한 근위병, 열혈맹장들로 자라난 전투원들을 힘있게 고무격려하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훈련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군대에는 이런 능력있는 진짜배기싸움군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유사시 총포탄이 비발치는 전장을 한치의 주춤도 없이 용감히 누벼나가며 적들을 쓸어눕힐수 있는 일당백기질의 소유자, 쟁쟁한 핵심전투원들을 알알이 키워 우리의 특수작전무력을 더욱 억척으로 건설할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전쟁의 양상과 성격을 고찰해볼때 잘 훈련되고 준비된 특수작전무력을 싸움마당의 기본전투무력으로 내세우는것은 승패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수작전무력건설은 우리 무력건설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훈련혁명, 사상혁명, 장비혁명을 확고히 틀어쥐고 최정예의 우리식 특수작전무력강화에 주력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실전훈련을 계속 강화할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늘 강조하는바이지만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리는 법이라고, 전쟁은 사전에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군대는 오늘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즉시 일거에 적들을 억제해버리고 무자비하게 쓸고나가 완전히 평정해치울수 있게 만반으로 준비되여있어야 한다고, 총을 틀어쥔 군인들에게 있어서 강도높은 실전훈련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것이 곧 국가와 인민에 대한 제일가는 애국심이고 충성심이며 제1의 혁명임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훈련에서 엄격한 요구성을 계속 제기하고 우리 식의 훈련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제고하여 전쟁에 완벽하게 준비함으로써 유사시 우리 군대와 맞다들면 결단코 적들이 피를 흘리지 않을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세상 그 어느 군대도 모방할수 없는 불굴의 영웅적기질과 전투정신이 전 대오를 지배하고있는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장성강화될것이며 그 명성과 실체만으로도 적이 두려워 덤빌 생각을 못하는 전쟁억제력이 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형의 600㎜방사포차성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형의 600㎜방사포차성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보시였다.

제2경제위원회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는 군대의 작전운용상요구에 따라 성능을 향상시킨 새형의 600㎜방사포차를 개발생산하였다.

포차의 주행계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화력복무전공정을 완전자동화한 포차의 전투적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시험을 진행하였다.

이날 진행된 주행시험과 련발사격시험을 통하여 포차의 우수한 전투적성능이 뚜렷이 립증되였으며 군인들의 호평을 받았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개발한 포차가 기존에 비해볼 때 기동성이나 효용성측면에서 우월한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발사된 방사포탄들은 동해상의 섬목표를 명중타격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정식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장 장창하동지가 해당 시험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생산기지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생산기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핵탄생산 및 현행핵물질생산실태를 료해하시고 무기급핵물질생산을 늘이기 위한 전망계획에 대한 중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홍승무동지가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강의 핵무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억척으로 보위해나갈 견실하고 투철한 혁명정신과 신념을 간직하고 핵탄제작에 요구되는 무기급핵물질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는 핵무기생산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의 공훈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라니움농축기지의 조종실을 돌아보시며 생산공정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심분리기들과 각종 수감 및 조종장치를 비롯하여 모든 계통요소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연구개발도입하여 핵물질현행생산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는데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현장을 직접 돌아보시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우리 당의 핵무력건설로선을 받들어 자위의 핵병기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자면 우리는 지금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원심분리기대수를 더 많이 늘이는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분리능을 더욱 높이며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새형의 원심분리기도입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핵물질생산토대를 더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핵무기현행생산을 위해 능력확장을 진행하고있는 공사현장도 돌아보시면서 설비조립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원자력부문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거듭 대만족을 표시하시고 우리 당은 바로 주체혁명위업의 대로를 핵의 위력으로 열어제낄 불타는 마음을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원자력전사들을 믿고 핵무력건설의 새로운 중대전략을 제시하였다고, 우리 당에 충실한 붉은 핵과학자들은 당의 핵무력건설정책을 강인한 신념과 드높은 실력으로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고무격려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에도 미제를 괴수로 하는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하는 핵위협책동들은 더욱 로골화되고 위험한계를 넘어서고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직면한 안전환경과 항구적으로 미국과 대응하고 견제해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 전망적인 위협들은 우리로 하여금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끊임없이 계속 확대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재삼 강조하는바이지만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항상 견지하고 고도로 제고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가속적이며 확신성있는 전진을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속적으로 다져나가기 위한 력사적사명의 가장 중차대한 책임을 걸머진 핵무기생산부문의 전투원들은 생산투쟁에 계속 힘있게 분기함으로써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자기의 임무를 더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술핵무기제작에 필요한 핵물질생산에서 보다 높은 전망목표를 내세우고 총력을 집중하여 새로운 비약적성과를 안아올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중대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말씀을 받아안은 전체 핵전투원들은 우리 국가의 자주적발전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삶과 안녕, 주체혁명의 앞길을 견결히 수호해나갈 세계최강의 핵병기창을 더욱 튼튼히 다져주시며 그 성스러운 투쟁의 전초선에 자기들을 세워주신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우리 식의 강위력한 핵무기들의 계속적이며 성공적인 탄생을 절대적으로, 확고하게 담보해나감으로써 당의 핵전략로선관철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특별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안전리사회 서기장 쎄르게이 쇼이구동지를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13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로씨야련방 안전리사회 서기장 쎄르게이 쇼이구동지를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쎄르게이 쇼이구동지와 반갑게 상봉하시고 1년만에 다시 만난 기쁨을 나누신 후 친선적이며 신뢰적인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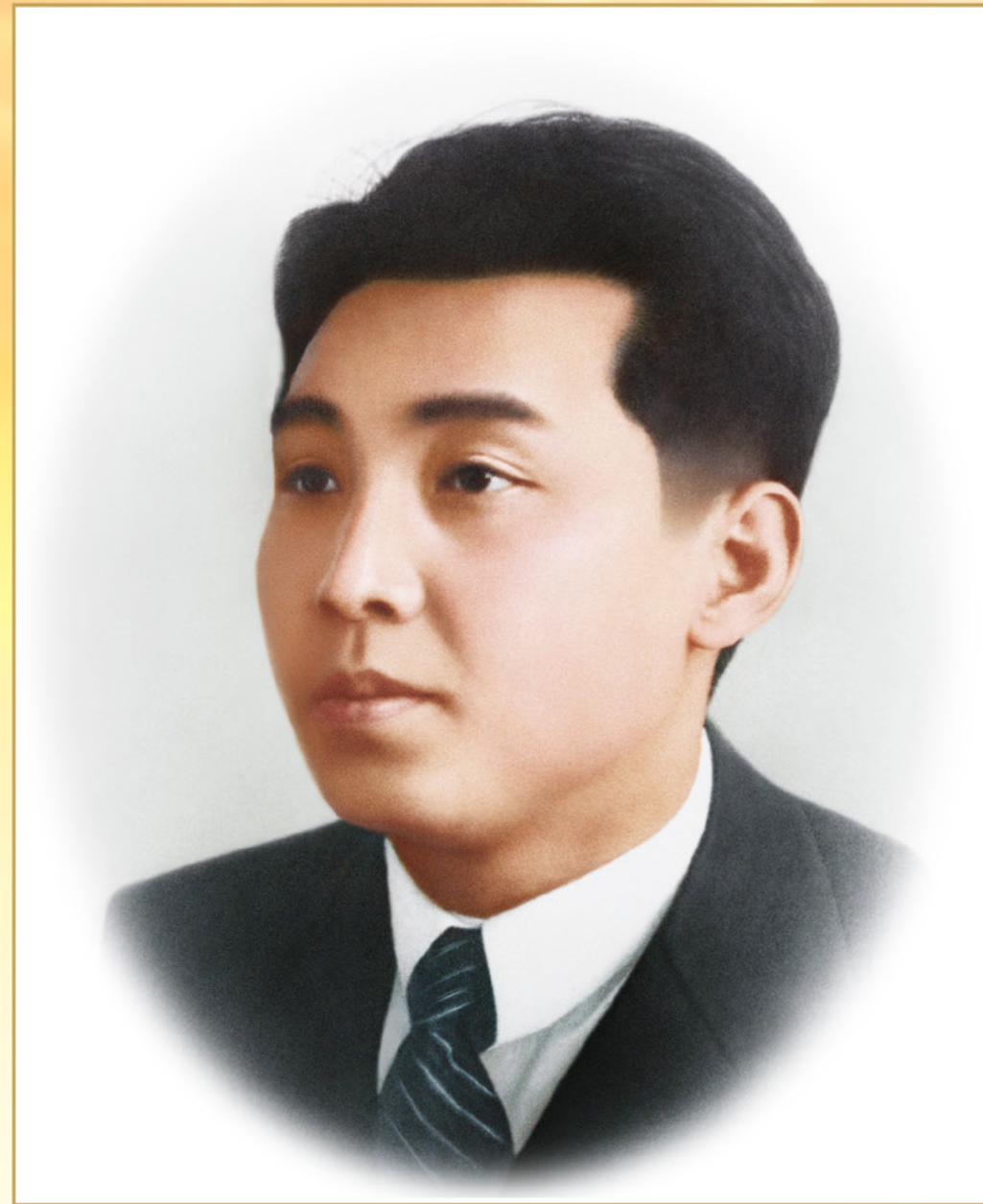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친근한 인사를 쇼이구동지가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존경하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동지에게 보내는 뜨거운 인사를 전하시였다.

담화에서는 조로 두 나라사이의 전략대화를 계속 심화시키며 호상안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협동을 강화해나가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정세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진행되였으며 상정된 문제들에 관해 만족한 견해일치를 보았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6월 조로평양수뇌상봉에서 이룩한 합의에 따라 두 나라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활력있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맞게 로씨야련방과의 협력과 협조를 더욱 확대해나갈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저녁 로씨야련방 안전리사회 서기장 쎄르게이 쇼이구동지를 또다시 접견하시고 건설적인 담화를 계속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쎄르게이 쇼이구동지를 전송하시면서 뜨거운 작별인사를 나누시고 존경하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건강과 사업에서의 성과를 축원하는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것을 당부하시면서 로씨야인민의 승리와 번영, 행복과 평안을 기원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45. 10. 10.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

당창건사적관

당창건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조선로동당의 창건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탄생이였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지금으로부터 근 80년전인 1945년 10월 10일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이 창건되였다.

일찌기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6월에 있은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제시하시면서 혁명적당창건의 독창적인 길을 밝히시였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하는것,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는것, 당창건준비사업을 반드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1930년 7월초 카륜에서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건설동지사를 무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해방전쟁인 동시에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였다.

항일무장투쟁과정에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결성되여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체계가 수립되였으며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가 실현되게 되였다.

또한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이 대대적으로 키워지고 당대렬의 통일단결이 반석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당건설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해방(1945년 8월 15일)후 지체없이 당을 창건하는 사업을 밀고나가시였다.

1945년 8월 20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하신 당창건의 튼튼한 조직사상적토대에 기초하여 당창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방에 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에 기초하여 당중앙지도기관을 꾸리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투사들을 각 지방에 파견하시여 이미 있던 당조직들은 정비강화하며 당조직이 없는 곳에는 새로 당조직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매일과 같이 각지방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로부터 사업보고를 받으시며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은 물론 도시와 농촌에 이르기까지 당조직들이 조직되고 정비강화되게 되였다.

지방당조직들을 꾸리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당중앙지도기관을 내오는 문제가 성숙된 요구로 나서게 되였다.

하지만 이 사업은 순탄하게 이루어진것이 아니였다.

당시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일제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벗어던진 인민들의 건국열의는 대단히 높았으나 어느 당파나 어느 조직도 인민들에게 똑똑한 건국로선을 제시하지 못하고있었다. 제각기 당이라는것을 만들어낸 종파분자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은 권력쟁탈에만 골몰하면서 공산주의대렬을 분렬시키고있었다.

그들의 지방할거주의, 분파책동에 혐오를 느낀 항일투사들은 당창립대회와 관련한 협의회에서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립할것을 주장해나섰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의견에 찬동하지 않으시였다.

물론 국내의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던 일부 혁명가들은 조직적으로 단련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파적악습을 버리지 않았으며 로동자, 빈농민도 정치리론수준이 어리다. 그러나 당대렬의 통일을 보장하고 당을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자면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혁명가들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모든 선진분자들을 다 망라시켜야 한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시여 당중앙지도기관을 창설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하여 1945년 10월 5일 평양에서 당창건을 위한 예비

회의를 거쳐 닷새후에는 마침내 본회의가 열릴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5년 10월 10일 력사적인 당창립대회를 소집하시고 우리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의 전위부대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세기적변혁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왔다.

오늘 우리 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총비서로 높이 모심으로써 불패의 위용을 더욱 떨쳐가고있다.

그이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를 우리 당의 구호로 제시하시여 전당에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혁명적당풍이 차넘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고계신다.

조선로동당의 근 80년의 력사와 더불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창건업적은 길이 빛나고있다.

글 박경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을 뜻깊게 경축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을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뜻깊게 경축하였다.

수많은 평양시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수도의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를 찾아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조국의 자주독립과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렬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 새겨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와 각지 렬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렬사묘들을 찾았다.

각지에서 국기게양식이 진행되였다.

국경절을 맞이하는 인민의 감격과 기쁨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9월 8일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 경축집회 및 야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이 진정되였다.

김일성광장은 국경절을 경축하기 위하여 모여온 수많은 평양시민들과 청년학생들로 설레이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 경축집회가 시작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게양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시위행진이 있었다.

시위행진에 이어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진행되고 축포탄들이 터져올라 경축의 밤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 경축공연이 9월 9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단막극 《내가 찾는 사람》공연이 국립연극극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 경축공연이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국립교예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종합교예공연이 평양교예극장에서 진행되여 명절을 맞는 수도시민들에게 랑만과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수도의 이르는 곳마다에 전개된 야외공연무대들에서 강국의 공민된 인민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 노래되여 끝없이 울려퍼지였다.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남포시, 개성시 등지에서 경축공연들이 있었다.

각지에 펼쳐진 청년들과 녀맹원들의 흥겨운 경축무도회로 국경절의 분위기는 더욱 환희로왔다.

또다시 들어올린 월드컵

우리 나라 녀자축구팀

국제축구련맹 2024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영예의 1위 쟁취

꼴롬비아에서 진행된 국제축구련맹 2024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녀자축구팀이 영예의 우승컵을 쟁취하였다.

조별련맹전에서 련전련승한 우리 나라 팀은 16강자전에서 오스트리아팀을, 준준결승경기와 준결승경기에서는 우승후보팀으로 지목되던 브라질팀과 미국팀을 물리치고 결승경기에서 일본팀과 대전하였다.

경기시간 15분경 15번 최일선선수가 득점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나라 팀은 일본팀을 1:0으로 타승하였다.

우리 나라 팀은 이번 경기대회 조별련맹전부터 시작하여 결승단계에 이르는 7차례의 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하였으며 도합 25개의 꼴을 넣었다.

준결승경기에 이어 결승경기에서도 결정적인 득점으로 팀의 승리에 이바지한 최일선선수는 이번 경기대회에서 도합 6개의 꼴을 넣었다.

시상식에서는 우리 나라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금메달이, 최일선선수에게는 최우수선수상과 최고득점자상이 수여되였다.

2006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 경기대회에서 또다시 월드컵을 들어올린 우리 나라 녀자축구팀은 최강팀으로서의 면모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시상식에서는 우리 나라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금메달이, 최일선선수에게는 최우수선수상과 최고득점자상이 수여되였다.

증산의 동음높은 대화학공업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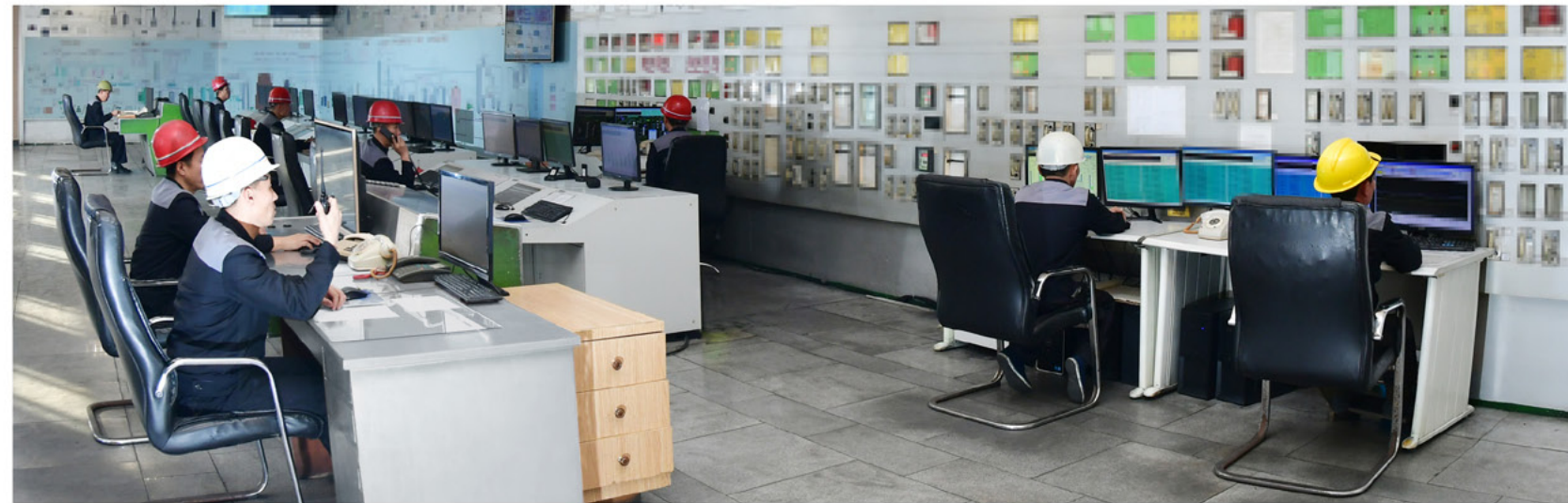
평안남도 안주시의 청천강반에 굴지의 화학공업기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가 자리잡고있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 끊임없는 질량적장성을 이룩해온 련합기업소에서는 지난해에만도 가스청정공정보강공사, 뇨소합성공정증설공사, 탄닌생산공정완비 등 여러 정비보강대상과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가동시킴으로써 기초화학제품들의 자급률을 더욱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이곳 종업원들의 열의는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비료생산부문에서는 보강된 가스청정공정과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질소비료생산공정들에서 안정적인 생산조작지표에 맞게 생산원가를 낮추는데 계속 힘을 넣고있다.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에서 기술혁신과 설비들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실수률을 높여 제품의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고있다.

자력부강, 자력번영

일군들이 앞장에서 가치있는 착상들을 발기하고 기술자들은 물론 로동자들도 자신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제고해나가면서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탐구도입하는데 적극 참여하고있다.

기업소에서는 현행생산과 함께 현대적인 새 부문구조를 갖추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이와 함께 종업원들을 위한 정양소를 새롭게 일신시켜 로동과 생활이 그대로 흥겨운 노래속에 이어지게 하였다.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하려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근로자들의 줄기찬 노력은 계속되고있다.

사진 리광성, 우정국
글 박의철

과수농장에 가을이 왔다

강원도에 자리잡은 고산과수종합농장에 가을이 왔다.

지난 봄철에 구름같이 하얀 꽃바다를 이루었던 백리과원이 지금은 온통 울긋불긋한 열매바다를 펼치였다.

그윽한 과일향기를 풍기며 사방으로 끝간데없이 늘어선 사과나무들의 가지에 손을 가져다대기만 해도 무르익은 열매들이 뚤렁뚤렁 떨어질것만 같다.

사과알들의 질량은 보통 100～250g이고 최고 500g이 되는것도 있다고 한다.

무겁게 휘늘어진 가지들을 헤치며 사과따기로 드바쁜 처녀들의 모습도 정다웁고 열매들을 한가득 싣고 달리는 자동차들의 모습도 흥그럽게 안겨온다.

정녕 이 고산땅의 진짜멋은 수확의 계절에 있는듯싶다.

년초부터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할 일념안고 아글타글 애써온 이곳의 근로자들이다.

고리형순환생산체계에 의해 생산된 유기질비료를 정보당 수십t씩 내여 지력을 높였고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들도 자체로 생산하여 시비하면서 과일나무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가지자르기, 병해충구제, 열매솎음 등도 적기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 모두가 떨쳐나섰다.

하여 가물과 무더위 등 불리한 날씨가 계속된 속에서도 끝끝내 황금열매 주렁진 가을을 맞이했다.

이곳에서 생산된 과일들은 고산과일가공공장에서 다양한 가공품들로 전환되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박병훈

고산

독특한 색과 감미로움으로 인기를 끄는

과일가공제품들

사과단물

사과주

사과술

화보 【오늘의 조선】

전위거리의 주인들

지난 5월 수도 평양에 또 하나의 새 거리 전위거리가 준공되였다.

시원하게 뻗어나간 도로를 사이에 두고 량쪽으로 늘어선 다양한 형식의 고층, 초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조화를 이룬 현대적인 이 거리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섰다.

이런 놀라운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별도로 서포지구에 옹근 하나의 특색있는 거리를 일떠세울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이 방대한 건설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에 통채로 맡겨주시였다.

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여 격동적인 연설로 청년건설자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주신 그이께서는 《전위거리》라는 뜻깊은 이름도 지어주시였다.

지금 전위거리의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조화를 이루며 곳곳에 일떠선 시설들이 새 거리, 새집의 주인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새 거리에는 유치원과 탁아소가 살림집가까이에 훌륭히 꾸려져있으며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기 위한 종합진료소도 갖추어져있다.

사진관과 목욕탕, 리발소, 빨래집, 약국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이 곳곳에 일떠서고 아빠트를 나서면 과일남새상점을 비롯한 상점들이 있어 생활상편리를 도모한다. 영화관과 식당, 꽃방을 비롯하여 문화정서생활거점들과 백수십개의 편의봉사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전위거리에 펼쳐진 새집의 주인들의 행복넘친 생활은 인민을 높이 떠받들어주는 우리 당의 숭고한 사랑이 낳은 화폭이고 새 거리와 새집에서 울리는 격정의 목소리는 곧 우리 인민이 터치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찬가인것이다.

사진 황정혁, 글 강수정

형제산구역 전위2동 55인민반 3층 1호
리정순

새집에 와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니 지나간 일들이 새삼스레 되새겨집니다. 조국해방전쟁(1950년-1953년)시기 조국의 촌토를 지켜 피흘려 싸운 전우들이 묻혀있는 석박산가까이에 보금자리를 정해준 나라의 은덕에 인사를 드리고싶습니다.

형제산구역 전위1동 34인민반 11층 1호
조명천가정

새집에 이사온 후로 점점 젊어지는것같다고 직장동료들이 늘 말합니다. 정말이지 신혼살림을 다시 시작한것만 같은게 날마다 가정에 웃음이 넘칩니다. 나같이 평범한 로동자들을 위해 이 새 거리를 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형제산구역 전위1동 35인민반 5층 3호
박경혁가정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애와 어머니 그리고 안해와 함께 매일 새 거리를 산보하군 합니다. 곳곳에 훌륭히 꾸려진 공원과 휴식터들이 있고 집앞을 나서면 봉사망이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형제산구역 전위2동 10인민반 10층 6호
차혁민

몸이 불편한 영예군인이라고 나라에서는 80층살림집의 좋은 집을 배정해주었으며 새 집들이를 축하하여 구역과 동의 일군들이 제일먼저 찾아왔습니다. 이웃들과도 제집식구처럼 오가며 정을 나누며 사는 우리 집이 제일입니다.

연풍호반에서의 휴양생활

우리 나라 명승지의 하나인 연풍호에는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휴양소가 자리잡고있다.

그것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자리도 잡아주시고 일떠세워주신 연풍과학자휴양소이다.

휴양각들과 봉사건물들을 편결하며 길게 뻗어간 외랑은 독특한 미로하여 류다른 감흥을 자아낸다.

푸른 숲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곳에서 과학자들이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보내고있다.

휴양소구내길에 깔아놓은 검푸른색의 잔돌들이 유표하게 안겨온다.

휴양소소장은 청석을 밟으면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하면서 이 청석에도 과학자들에 대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뜨거운 은정이 깃들어있다고, 휴양생들의 휴양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은 국가의 부담으로 보장된다고 말하였다.

11만 9 000여㎡의 부지면적에 연건축면적이 1만여㎡인 연풍과학자휴양소에는 9개의 휴양각들과 종합봉사소, 다용도운동장, 모래터배구장, 실내 및 야외물놀이장, 뽀트장, 휴식터, 정각 등 휴양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과학자들의 휴양생활은 환영연회로부터 시작된다.

배구와 정구, 탁구 등 다양한 일과로 흘러가는 휴양의 나날 휴양생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질줄 모른다.

다용도운동장에는 배구장과 바드민톤장, 정구장이 꾸려져있는데 겨울에는 정구장이 스케트장으로 변한다고 한다.

휴양생들이 이곳에서 제일 인상깊어하는것은 뽀트놀이라고 한다.

넓은 호수에서 노를 저어가는것도 즐겁지만 유람뽀트를 타고 연풍호의 아름다운 풍치를 부감하며 불고기를

맛보는 멋이야말로 기막히다고 휴양생들은 말한다.

퇴소하는 날이면 휴양생들은 한사람같이 《연구성과를 이룩하고 또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휴양소종업원들에게 남기군 한다.

훌륭하게 꾸려진 휴양소에서 최상의 대우를 받으며 휴양의 나날을 보내는 휴양생들은 우리처럼 복받은 과학자들이 세상에 또 있을가 하는 생각으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젖어든다고 한다.

연풍호는 온 나라에 소문난 과학자휴양소가 자리잡은것으로 하여 더 유명해졌다.

올해는 연풍과학자휴양소가 일떠선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사진 황정혁
글 박경철

새 거리의 맥주집

- 화성대동강맥주집 -

올해 4월 수도 평양에 또 하나의 현대적인 새 거리로 일떠선 림흥거리에 화성대동강맥주집이 생겨나 맥주애호가들속에서 커다란 인기를 모으고있다.

새 거리의 맥주집은 겉모양부터가 특색있게 꾸려졌다. 맥주집입구의 기둥을 대동강맥주병으로 형상한것이며 그옆에 세워진 거품이 철철 넘치는 맥주고뿌모형 등은 보는 사람

들로 하여금 절로 탄성을 터치게 한다.

화성대동강맥주집의 인기는 비단 건축물의 특색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한여름의 열기로 한껏 달아오른 몸을 순간에 식혀주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대동강맥주의 독특한 매력에 사람들이 반하고있는것이다.

누구나 평양에 오면 화성대동강맥주집에 와보시라. 그러면 대동강맥주의 독특한 맛을 한껏 맛보게 될것이다.

사진 우정국
글 한수영

대동강맥주

TAEDONGGANG BEER

감미롭고 상쾌하며
부드럽고 청신한 맛을 내는
여러 종류의 대동강맥주

산간도시의 승마풍경

최근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서 인기있는 항목으로 되고있는 《승마바람》이 산간도시에도 불어오고있다.

지난 6월 자강도 강계시에 승마구락부가 새로 꾸려졌다.

독특한 건축미를 가진 봉사시설들이 장자강을 배경으로 늘어서고 커다란 호수를 중심으로 그 둘레를 따라 닦아진 승마주로는 마치 한폭의 그림을 련상케 한다.

주변경치와 어울리게 특색있게 꾸려진 승마구락부로 련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는데 누구나 이곳에 들어서기만 하면 절로 마음이 상쾌해진다고 한다.

기마수들의 방조속에 말고삐를 쥐는 법과 말안장에 오르는 법부터 배우는 《초학도》들이 있는가 하면 뽐내기라도 하듯 제법 박차를 가하며 경쾌하게 달리는 애호가들의 모습이 관중들의 이목을 끈다.

달리는 말과 몸의 률동을 맞추며 주로를 따라 내닫는 사람들과 말고삐를 틀어쥔채 어찌할바를 몰라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탄성과 웃음이 뒤섞이여 승마장은 떠나갈듯하다.

호수중심에 있는 승마각을 바라보면 년로자들이 펼쳐놓은 흥겨운 춤판이 승마장의 풍치를 돋구고 청량음료를 마시며 승마소감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도 유정하게 안겨온다.

이곳 일군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로부터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매일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명절을 비롯한 휴식일이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고 한다.

산간도시에 펼쳐진 승마풍경은 인민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사진 리명국
글 박의철

장철구평양상업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은 창립후 지난 65년간 급양과 봉사, 피복과 경리 등 상업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수많이 키워냈다.

평양시 평천구역에 자리잡고있는 장철구평양상업대학은 상업부문의 기술인재들을 육성해내는 원종장이다.

대학은 주체48(1959)년 9월에 창립된 후 지난 65년간 급양과 봉사, 피복과 경리분야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내는것과 함께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고 사회주의상업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주도적역할을 하여왔다.

최근년간에는 실천형기술인재들을 전문으로 키워내는 대학의 특성에 맞게 실기교육의 비중을 현저히 높여 학생들을 높은 실천실기능력을 소유한 기술인재들로 준비시켜가고있다.

그 실현을 위해 대학에서는 교내에 부문별실습 및 실기장들을 완벽하게 꾸려놓았다.

료리실습을 위한 설비와 집기류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료리종합실습장에서는 한번에 수십명의 학생들이 조선료리와 외국료리를 비롯한 갖가지 료리가공실습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다.

호텔봉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에 필요한 실천능력을 키워주는 봉사실기실도 이목을 끈다.

부문별실습 및 실기장들에서 학생들이 실기수업을 통하여 자신들의 자질을 련마하도록 하고있다.

특색있는 형식을 갖춘 피복실기실들에서는 교원의 지도밑에 각종 형태의 옷설계와 옷가공기술을 습득해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학생들은 여러 상업 및 봉사단위들과 생산단위들에서의 현지실습도 진행하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유능한 기술인재들로 준비해가고있다.

젊고 쟁쟁한 교원들을 중진으로 하고있는 대학의 교육자집단은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에 맞게 선진적인 교수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탐구도입하고있으며 심도있고 폭넓은 과학연구활동으로 해마다 많은 교과서와 참고서들을 집필발행하고 국내외상업봉사단위들과의 학술교류도 광범히 진행해나가고있다.

사진 손희연
글 박의철

력사유적
광 법 사

광법사는 조선의 첫 봉건국가였던 고구려(B.C. 277년 - A.D. 668년)시기에 세워진 불교사찰이다.

평양의 대성산기슭에는 오랜 력사유적인 광법사가 있다.

광법사는 조선의 첫 봉건국가였던 고구려(B.C. 277년-A.D. 668년)시기에 세워진 불교사찰이다.

사찰은 해탈문, 천왕문, 대웅전, 동, 서 승당, 8각5층탑 등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매 건물들은 탑을 통하는 중심축에 따라 대칭으로 배치되여있다.

광법사의 중심건물인 대웅전은 금단청을 한 2층합각집으로 되여있다.

잘 다듬은 돌로 그쯘하게 쌓은 기단우에 정면 3간, 측면 3간으로 건립된 대웅전에는 3개의 불상과 탱화가 있다.

해탈문에는 코끼리와 사자에 타고있는 보살들을 형상한 조각상들이 있으며 천왕문에는 동, 서, 남, 북을 지킨다는 사천왕상조각이 있다.

광법사에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련못과 1727년에 세운 광법사비, 그후에 세운 광법사증수단청비 등도 있다.

우리 인민의 당시 발전된 건축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인 광법사는 오늘 국보적인 유적으로 보존관리되고있다.

사진 우정국
글 김선경

ㄱ-24088021867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